

1.

1. 바로 프로젝트에 대한 설명을 하기보다 사이드로 이전에 어떤 회사인지 설명해주는 프롬프트 작성 공간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.

1-2) 어떤 일을 하는 회사인 지 더 맞춤형 생성이 가능할 듯. 1-3) 어떤 회사인 지 알고, 어떤 인원이 있는 지 안다면, 현재 각 인원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 지 대시보드 추출 할 수 있을 듯. (현재 어떤 인원은 과도한 업무를 하고 있고, 비교적 러프한 업무가 있는 인원이 있으면 러프한 인원한테 업무를 추천하는 형태)

2. 팀원 프로필을 모두 입력하는 것도 팀원이 너무 많다면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.

2-2) 그냥 조직도를 넣어서 어느 부서에 누가, 몇명 있고, 역할 정도만 입력해도 이를 이해해서 추천해주면 더 좋을 듯.

3. 프로젝트 단계를 잘 구성해줬는데, 현재 어느 단계에 있는지 아이콘으로 알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.

3-2) 또 그 단계가 완료되었으면, 완료 버튼을 눌러서 다음 단계로 넘어 가는 형식.

2.

4. 프로젝트 단계를 저는 1단계부터 6단계까지 구성을 해줬는데, 각 단계별로도 또 세부 계획이 있을 것 같아요. 이것도 자동으로 먼저 틀을 짜주고, 미세한 부분은 수정할 수 있게 해주면 더 좋을 것 같아요.

3. 허준호 — 오후 3:48

4-2) 단계 구조 시한테 1단계를 더 세부적으로 기획해줘! 라고 프롬프트 입력한 후에 변경 버튼 눌렀더니, 이건 흰 배경으로 오류가 났습니다.

4.

5. 구조는 잘 짜주는? 느낌이고, 세부 기획별로도 인력을 추천해주는 것도 좋았습니다. 근데, 완료 버튼을 눌렀을 땐 흰 배경에서 넘어가지 않더라고요.